

“안세영” “금메달”... 고향 나주·모교 광주체고 뜨거운 응원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안세영 결승 경기 응원전이 5일 오후 나주시 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안세영이 금메달을 획득하자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5일 오후 안세영의 모교인 광주체육고등학교에서 후배들이 안세영이 2세트 골든포인트를 따내자 일어나서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 스포츠파크서 시민 200여명 금메달 확정에 함성 또 함성 광주체고 교직원·학생들, 압도적 플레이에 “우리의 자랑” 감격

“나주시민은 금빛스매싱을 응원합니다. 그랜드 슬램의 마지막 퍼즐을 향해 화이팅. 당신의 땀과 눈물을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국민영웅 안세영 선수 그랜드 슬램 달성을 기원합니다” 안세영의 고향 나주 시민들은 5일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사펠 아레나에서 열린 안세영(22·삼성생명)과 중국 허빙자오의 배드민턴 단식 결승전을 지켜보며 선전을 기원했다. 200여명 시민은 응원봉과 선전을 기원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나주 스포츠파크 다목적 체육관에 모여 대형스크린을 보며 안세영을 목놓아 응원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이 허빙자오의 서클룩을 받아 넘길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교차

했다. 이들은 안세영이 첫 세트에서 한 때 허빙자오에게 뒤지자 안세영을 연호하며 힘을 보탤다. 안세영이 포인트를 내줄 때면 탄식을 쏟아내기도 했다. 마침내 안세영이 허빙자오를 세트스코어 2-0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우승을 확정하자 일제히 함성으로 배드민턴 여제의 대관식을 축하했다. 안세영과 각별한 인연을 나눈 시민들의 응원은 더 각별했다. 안세영의 풍암초, 광주체중 체고 후배인 김소정(21·나주시체육회) 씨는 “안 선배는 항상 노력하는 선수였다. 초등학교 때 남들이 싫때도 연습하는 연습래였다”면서 “당당히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안세영 선배를 만났다. 노력으로도 실력으로도 안 선배를 이길 사람은 없다. 역시 중국의 허빙자오도 안세영을 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영의 모교인 광주체육고에서도 후배들의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다. 5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광주체육고등학교 내 도담마루에서는 교직원들과 안세영 선수가 몸담았던 광주체중·고배드민턴부 후배들, 체고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TV를 통해 중계되는 그의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후배들은 안세영의 절묘한 네트 플레이에 감동하는 듯했다. 특히 헤어핀과 드롭을 적절히 섞고 주먹기인 반스매싱과 폴스매싱으로 이어지는 랠리도 상대를 요리하는 모습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안세영은 다양한 국내 대회에서 우승한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미래로 자리매김

해왔다. 지난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그는, 2023년 8월 일본 오픈에서 우승하며 세계 랭킹 1위의 자리에 올랐다. 광주체육중과 체고 재학 시절 안세영을 지도했던 김명자 감독은 “안세영 선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오늘 금메달은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이다”고 감격스러워했다. 황용준 광주체고 교감은 “안세영 선수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며, 파리올림픽에서의 그녀의 선전이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안세영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세영의 학교 후배인 김민아(광주체고 1)양은 “안세영 선배의 경기를 보고 저희도 더 열심히 훈련해 미래의 올림픽에서 안 선배처럼 활약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번 응원전을 통해 광주체고는 안세영 선수를 향한 뜨거운 응원과 함께,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안세영은 광주와 전남에서 서클룩 여제의 꿈을 키웠다. 안세영은 아버지(안정현 전 나주체육회 사무국장)를 따라갔던 배드민턴 동호인 클럽에서 라켓을 잡았다. 아버지는 배드민턴에 소질을 보이지 않자 나주 중앙초교 1학년 때 광주 풍암초로 전학시켰다. 배드민턴 스타 이영대의 스승인 최영호 감독에게 본격적으로 배드민턴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2017년 광주체중 3학년 때 선발전을 통과해 2018년부터 성인 대표팀에서 뛰었다. 안세영은 광주체고를 졸업한 뒤 학업을 접고 실업팀 삼성생명에 입단, 올림픽 1인자를 꿈꿨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순 출신 임애지, 빛나는 복싱 동메달

부모·동생 등 가족이 체육인 약기연주 등 다재다능 팔방미인

임애지(사진)가 빛나는 동메달로 2024 파리 올림픽 여정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18면> 그가 새로 쓴 한국 복싱의 ‘새 역사’는 임애지의 도전 정신과 노력의 산물이었다. 임애지는 4일 프랑스 파리의 노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여자 54kg급 준결승에서 튀르키예의 하티세 아크바시를 상대로 2-3으로 아쉽게 판정패했다. 앞서 임애지는 지난 1일 예니 마르셀라 아리아스 카스타네다(콜롬비아)와 맞붙은 8강전에서 승리

해 준결승 진출과 동시에 동메달을 확정 지으며, 한국 여자 복싱 첫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화순중-전남기술고-한국체대를 거쳐 현재 화순군청에서 뛰고 있는 임애지는 지난 2021년 도쿄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나선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복싱 역사를 새로 썼다. 중학교 시절 본격적으로 복싱 선수의 꿈을 꾸게 된 임애지는 어렸을 때부터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을 봐야 직성이 풀렸다. ‘스스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부모님의 영향도 컸다. 임애지를 비롯해 그의 가족 모두 열정과 도전 정신이 깃들여있는 체육인이다. 임애지의 어머니 이영애씨는 마라토너로서, 다양한 국내 및 해외 대회에서 뛰었다. 2002년부터는

마라톤 대회 기획사 ‘마라톤 세상’을 운영하며 광주일보 ‘너릿재 옛길 마라톤 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버지 임수근씨 역시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꾸준히 생활체육으로 수영과 검도를 해왔다. 동생 임하진은 경기도정 소속으로 뛰고 있는 크로스컨트리 선수다. 마라톤을 뛰고 있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때부터 동생과 육상을 시작했던 임애지는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복싱 경기를 접하고 ‘복싱 선수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 파리에서 직접 딸을 응원한 어머니 이영애 대표는 “동생 하진이는 대회가 있어서 저와 남편만 같이 응원하러 왔다. 멀리서 지켜보는데 상대들이 쟁쟁한 선수들이라 걱정이 됐다”며 “처음에 애지가 복싱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하러온 끝까지 해야지 그냥 취미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수 한다고 더 열심히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힘든 날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항상 힘든 티 내지 않고 밝은 모습을 보여줬던 딸이다.

전날 경기가 아쉬워도 ‘끝난 거니까 잊고 다음 경기 준비해야 해’라고 말하곤 한다”고 전했다. 임애지가 한국 여자 복싱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 꾸준히 훈련일지를 쓰며 지난 경기를 되짚어보고 순간의 감정을 털어놓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됐다. 8강에서 승리하며 메달을 확정 지은 후에도 임애지는 다음날 새벽까지 일지를 쓰며 다음 경기를 위한 마음을 가다듬었다. ‘노력파’ 임애지는 엄청난 끈기로 복싱 외에도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이다. 어렸을 때부터 해운 피아노를 비롯해 바이올린과 기타까지, 새로운 악기를 다루는 것에도 열정이 넘다. 얼마 전에는 5톤 트럭을 몰기 위해 1종 대형면허 운전자격을 따왔다. 이영애 대표는 “애지는 저와 달리 겁이 없고 멘탈이 강한 것 같다. 다양한 걸 해보려고 하는 태도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밝고 긍정적인 태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